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열대 거세미나방, 딱노린재가 발생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 남부안 농협 경제센터 공동방제단과 협력하여 긴급방제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역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위험 장거리 이동성 해충으로 옥수수, 수수, 조, 벼 등 벼과 작물을 유충이 잎, 줄기, 이삭을 폭식하는 광식성 해충이며, 딱노린재는 제방이나 논둑, 낙엽 등에서 활동한 후 7월 상순경까지 분달로 이동해 벼 등 화분과 작물의 이삭이나 줄기를 흡즙하며, 쌀 품질과 생산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병해충 예찰결과 부안읍 시료용 옥수수 포장에서 발생한 열대거세미나방을 반경 3km 이내 5ha를 긴급방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적용약제를 살포하였고, 딱노린재는 남부안권역 100ha에 긴급방제를 실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서 2년 연속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악취 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47개의 시·군이 신청해 시도 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중앙 평가를 거쳐 2단계 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축산악취에 대한 개선 의지와 문제점 파악, 악취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정화방류시설과 액비 순환 시스템 등 악취 저감 시설, 퇴비화 시설을 구축해 악취 발생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 유치”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심덕섭 고창군수, 유치활동·국비 확보 구슬땀

심덕섭 고창군수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활동을 비롯해 국비 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고창이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을 펼쳤다.

심 군수는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해수부의 이재영 해양생태과장 등을 면담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고창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



의했다. 이어 "부처차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을 고창군이 시범사업(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전북도와 센터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들리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또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현재 부처에서 넘어온 사업과 더불어 기재부 단계에서 추가 반영 노력이 필요한 사업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는 단순히 사업비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예산확보 단계마다 세심하게 챙겨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강도 높은 인사 혁신 '주목'

이학수 정읍시장이 강도 높은 인사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사정책 시 배제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힘겨운 인사정책 시행은 승진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민선 8기 인사방침을 공개 천명하며 배수 내 근영 앞선 직원 우선, 여성 및 소수 직역과 기피 부서 우대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정읍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승진후보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밝힌 민선 8기 인사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직원들과 인사 혁신 방안과 건의 사항, 조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 직원들은 "이번 인사 간담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문화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일하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위해 인사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주고 싶었다. 공무원이 소신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따듯한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쇄신하며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사에 불만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에는 7월 정기인사를 통해 4급(4명)과 5급(14명) 승진 내정자를 발표할 뒤 이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밝힌 뒤 "자긍심을 갖고 시민께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과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인사정책 대상자는 배제하고 2배수 안에서 했으며, 소수 직역과 여성을 우대(33.3%)했다"면서 "특히 국장이 직접 적임자를 해당 국의 과장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드래프트제를 실시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23개 읍·면·동 방문 시민 목소리 듣는다’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 행정

이학수 시장이 발 빠른 지역 현안 파악과 시민 소통을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23개 읍·면·동 방문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취임한 이 시장의 현장 행정 일환으로 읍·면·동 기관단체장, 이·통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폭을 넓혀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정읍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으뜸 도시로 조기 정착시키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날 수성동과 농소동, 내장상동, 장명동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이학수 시장이 발 빠른 지역 현안 파악과 시민 소통을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23개 읍·면·동 방문에 나선다.

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개선과 대시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시는 읍·면·동 방문 기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방문은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9대 고창군의회, 개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2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하여 역대 의원, 도의원, 언론인,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관계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고창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은 지난 7월 1일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4~5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원구성을 마친데 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출발과 각오를 다지고자 이루어졌다.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 여러분과 많이 부대끼며 많이 듣고,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겠다"며,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다수 발견

고창군에서 지난 7월5일 부안면에 위치한 시료용옥수수밭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다수 발견되어, 옥수수 재배농가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117개국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검역관리병해충으로 기주 식물의 속잎을 집중가해하여 큰 피해를 준다.

300여종 이상의 식물을 가해하는데 특히 옥수수, 수수 등 벼과 식물을 좋아하는 광식성으로 섭식력이 강하다. 또 알컷 1마리가 1000마리까지 산란하며 세대가 짧아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기장 60~70cm의

시료용옥수수밭(6600㎡)에서 3~4령인 유충 15마리 이상 발견하였으며, 부화한 유충에 대한 피해는 올 해 처음이다.

예찰단은 작별별 병해충 상습발생지역에 적기 예찰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농작물이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